

광주 시내버스 기사 체력 '평균 이하'

근지구력·유연성·민첩성 등 일반인 보다 크게 떨어져
피로 누적에 고령 운전자도 늘어... 대형사고 위험 상존

광주시 1886명 건강검진 결과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등이 일반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제대로 쉬지 못해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데다 고령 운전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고령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11월 시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 광주지역 시내버스

종사자 1886명의 건강과 체력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민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과 체력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조차 놀랄 정도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건강과 체력 상태가 심각했다.

키는 전체 평균 169.7cm, 체중은 72.5kg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 평균보다 몸무게가 무거웠고, 체지방률도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혈압 역시 전 연령대에서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86(이완기)~131(수축기)로, 일반인 평균 80~120보다 높았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장시간 운전대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운동량이 부족해 체지방률과 혈압이 높게 나온 것이다.

체력도 일반인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힘을 쓰는 근력과 근지구력은 전 연령대에서 평균보다 낮았고, 심폐지구력 또한 모든 나이대에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심폐지구력의 경우 50~54세 시내버스 기사들의 평균은 16.1로 일반인 평균 32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55~59세는 시내버스 기사 14.4, 일반인 26 그리고 60~64세는 시내버스기사 13.4 일반인 20으로 나타나는 등 50세 이상 운전기사들의 심폐지구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 상황에 순간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연성, 순발력도 전 연령대에서 턱없이 낮았다. 유연성 조사에서 50~54세 시내버스 기사는 평균 6.4인 반면 일반인은 11.7을 기록했다.

순발력은 전 연령대에서 평균을 밑돌았다. 40~44세 시내버스 기사는 평균 176.4

를 나타냈지만 일반인은 평균 205.1로 크게 높았다. 45~49세도 시내버스 기사 176.6, 일반인 194.6였으며 50~54세 시내버스 기사는 167.7 그리고 일반인은 185.2를 각각 기록하는 등 시내버스 기사들의 순발력이 일반인에 크게 못미쳤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 관계자는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건강과 체력이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하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처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건강과 체력이 전체적으로 나빠진 것은 과도한 근무시간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자 2363명 중 51세 이상은 68.6%인 1622명이다. 법인택시도 운전기사 3698명 중 61세~70세가 21.2%인 784명, 71세 이상 40명(1%)이다. 개인택시는 전체 운전자 4793명 중 61~70세는 44.6%인 2137명, 71세 이상도 341명(7.1%)이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알립니다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 세미나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전국 각 권역을 대표하는 8개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지역언론의 역할을 조명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이번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한국지방신문협회
- 인사말 : 여창환(매일신문 사장·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 축사 : 유성엽(국회의원·국회 문광위원장), 나종민(문체부 1차관)
- 사회 :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1부(주제 발표)
- ▲안차수(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지역신문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지역신문법과 지원 방식의 개선 방향
- 2부(토론)
- ▲염동열(국회의원), 김세연(국회의원), 이병철(부산일보 편집국장)
- 임철수(한국신문협회 경영사업부장)



光州日報社



“사랑해요 한국”...베트남대학생들의 한복 체험
조선대-베트남 국제하게여름학교에 참가 중인 베트남대학생들이 17일 광주시 남구 향교 전통체험관에서 한복을 입고 밝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달청장 박춘섭·병무청장 기찬수·기상청장 남재철·산림청장 김재현 문대통령 차관급 8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조달청장에 박춘섭(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에 기찬수(63)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 기상청장에 남재철(58) 기상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산림청장에 김재현(52)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60)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오동호(55) 인사혁신처 상임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이와 함께 국립외교원장에 조병제(61) 전 말레

아시아 대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배기동(65)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프로필 2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8개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 8명 중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재현 교수는 담양 출신이다.

이에 따라 '17부 5처 16청'의 중앙정부 인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현재 후보자 지명 또는 임명이 끝나지

않은 중앙정부 소속 기관장 자리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대엽 후보자가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새 후보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은 차관급 청장 6자리 중 임기가 있는 자리는 경찰청장과 특허청장 등 두 자리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철성

현 경찰청장의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박지경기자 jkpark@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박성현 US오픈 우승 LPGA 데뷔 첫 승

▶관련기사 20면



PyeongChang 2018 G-200 Fireworks Festival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200 불꽃축제

2017. 7. 22 (토) 17:00 - 22:00

춘천역 일원 (레고랜드 입구)

홍보행사 17:00 - 22:00

식전공연 19:00 - 20:05

공식행사 20:05 - 20:55

불꽃쇼 20:55 - 21:45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원도
GANGWON PROVINCE

9월5일부터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